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2년
그리스도인 추도 기도회 성명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관동대지진 학살 102년을 맞이하여,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관동 지역 전역에서 학살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 학살은, 1910년 한국 강제 병합 이전부터 일본군이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 운동을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전멸’ 살육했으며, 또한 3·1 독립 만세 운동(1919년)을 ‘불량 조선인/不逞鮮人(불순분자)’ 폭동으로 규정해 군대와 관헌이 7,000명 이상의 민중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탄압한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동대지진 학살은 대지진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을 계기로 ‘불량 조선인 폭동’을 이유로 천황의 칙령에 따른 계엄령 발포(9월 2일 정오)를 계기로 계엄군과 관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경단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5엔 50전(十五円五十銭)”이라고 말하게 하여, 탁음(濁音)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조선인을 가려내어 체포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그 학살로부터 102년이 지난 올해, 지난 7월 20일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 제27회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 각당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마치 10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재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선거 연설을 빌미로 한 혐오 연설(Hate Speech)이 일본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또한, 혐오(Hate)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주변에 모인 군중으로부터 박수가 터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인 우선’을 내세우는 정당이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우대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무근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의심과 적대감이 부추겨지고, 그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국회 의석이 증가하는 현실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2023년과 2024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연속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개정에서는 극히 낮은 난민 인정률에, 3회차 이후의 난민 신청시에는 신청중이라도 강제 송환 대상이 되며, 송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송환 회피죄’라는 죄명으로 ‘범죄자’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4년의 개정에서는 영주자의 영주 자격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국인 주민을 ‘불법’ 이민이라 부르며 ‘위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외국인 배제와 배척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외국인 배척 선동이 일반 사회의 외국인 배척을 유도해 혐오를 일으키는 구조는, 102년 전에 정부에 의한 ‘불량 조선인’이라는 인상 조작에 따라 지진 이후의 학살이 발생했던 구조와 겹칩니다. 우리는 지금 학살의 직전 단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전 세계 곳곳에서 배외주의를 내세우는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사회에서도 배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다수파와 다른 문화·습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억압은 사회적 소수자만의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배외주의가 시민 사회 전체를 침식할 때, 사회는 급속히 파시즘(fascism)화 되어 전쟁으로 치닫게 되며, 결국 멀지 않아 붕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근 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인권 조약은 배외주의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갖추도록 해당 비준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이 의무와 책임에 아직도 응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 월 참의원 선거의 가두 연설을 둘러싼 군중들 속에서, “15 엔 50 전이라고 말해봐” 라는 102 년 전의 학살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야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혐오를 부추기는 중심 연설과, 그것을 부추기듯 둘러싼 군중의 모습은 102 년 전에 총과 일본도, 낫으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계엄군, 관헌, 자경단원이라는 폭력의 중심을, 군중이 부추기며 둘러싼 학살 현장의 풍경과 겹칩니다.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의 바깥쪽에는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폭정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등을 돌리며 묵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폭정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 세 번이나 “그 사람을 모른다” 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한 베드로를 떠올리며, 102 년 전(※주)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파송 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목상하면서, 현재 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배척주의에 말과 행동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회에서 ‘표적’이 되어 희생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증언하며,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년 8 월 30 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2 년 그리스도인 추도 기도회

(※주) 1923 년 11 월에 당시 개신교 각 교파가 연합하여 구성한 일본 기독교 연맹의 창립 총회 자료에는 그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언급이나 추모 기도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 각 교회도 그 학살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는 일본 기독교 역사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